

전공의 파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 버려둔 채 파업 안된다”...“비현실적 정책 추진 멈춰야”

“의대정원 확대 등 근본대책 안돼” 전남대·조선대 교수들 파업 지지 “외면받는 파업 중단... 대화 이어가야” 일부 교수·학생 목소리 눈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대립,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 등으로 강 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정부의 의료계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론을 의식한 양측의 대화 노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격화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의협과 의대 교수들-전공의협의회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의료관련 단체와 의사들이 전공의 파업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31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경우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과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수도권 집중, 공공의료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단시안적 의료정책 철회를 통해 젊은 학생과 의사들이 학교와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 휴학 및 의사 국가시험 거부, 전공의 동맹 휴업, 젊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제자 및 의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전공의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의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파업을 찬성하는 의료계의 흐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찬성으로 간주하거나 집단행동에의 동참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교수나 학생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대 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와 관련, 이 대학 이철갑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런 (교수협의회 성명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로서 현 상황 (지방의 의료 소외)에 대해 말하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선배 의사이자 교육자인 우리 자신부터 반성해야 함에도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냈다.

이철갑 교수는 또 “지금 이 상황을 국민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국민의 비판과 비난에는 남 이야기처럼 애써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합니까. 실제로 국민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경시하고, 속물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



1일 광주송정역앞에서 한 전공의가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교수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우리 교수들이 나설 테니 너희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휴학도 철회하고, 국가고시도 치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이제 선배 의사이자 교육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 이후

에 정부를 향해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반대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의대

협 투쟁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의대생들이라고 밝힌 뒤, 정부의 의사 증원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도, 강하게 추진되는 행동들 속에 소수의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수급 업무·월급 대신 건당 수당’ 구인광고 보고 일수 운용 회사로 알고 취직했다는데...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궁색한 변명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수급 업무를 한다.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말해준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도 주고 월급 대신 건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생활정보지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같은 근무 형태를 소개받았다면 어떤 직장일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회원제 컷돈을 수금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같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20

분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정읍시 시장 인근으로 옮겨 피해자에게 189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고 2시간여 만에 다시 충남 부여로 이동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사기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2월 17일, 익산으로 가 현금 515만원을 건네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정보지 구인공고를 보고 회원제 계 모임 또는 일수를 운용하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줄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봤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근거로 ▲A씨가 취직했다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면접을 보지도 않고 SNS 메시지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 취직과정이 비정상적인 데다 ▲취직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거나 채용 담당자 등 회사 관계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이통과 직위 등을 사칭한 점 ▲피해자들의 돈을 무통장 입금한 회사 A씨가 취직했다는 회사가 아닌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수금책 역할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밤부터 태풍 영향권...강풍·최고 300mm 비

복상중진제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된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2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시속 16km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5hPa, 중심최대 풍속은 시속 176km(조속 49m)다.

기상청은 ‘마이삭’ 북상에 따라 광주·전남

내륙과 해상에 태풍 예비 특보를 발효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해상을 경유한 후 3일 새벽 경상해안 부근을 지나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2일 밤 11시 완도, 3일 새벽 1시 광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삭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는 3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된다.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50mm, 전남동부권 등에는 100~300mm의 많은 비가 전망된다.

2일과 3일 사이 예상최대순간풍속은 시속 72~144km(20~40m/s)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일 저녁부터 3일 아침 강수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차 취업사기’ 목사 구속...공범 추적

경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광주일보 8월 25·26일 6면) 와 관련,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회 목사를 구속했다. 경찰은 SNS 피해자 대화방에 참여한 390명 중 10여명의 피해에 목사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의 공모자들을 잡지 못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

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기아차에 정규직으로 채용업체를 소개하며 구직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광주지역 교회 목사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

며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도 피해자”라는 A씨 진술에도, 기아차 취업 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이익을 본 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범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기아차 협력사 사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거나 기아차 허위 문건을 제시하며 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